

2023. 6. 30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30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120 서울특별시
다산콜재단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120다산콜재단
운영본부 특화상담팀,
기획관리본부 기획팀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운영본부장	심상원	02-3278-5790
기획실장	도종현	02-3278-5710
특화상담팀장	신명애	02-724-1525
담당자	김선영 (특화상담팀)	02-724-1653
	이경은 (홍보담당자)	02-3278-5723

“한국생활 SOS 전화로 해결하세요”

120다산콜센터-다누리콜센터 외국어상담 업무협약 체결

- 이주여성·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한국생활·의사소통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 연계·협력
- 외국어 상담 서비스 범위 및 운영시간 상호보완으로 외국인의 정보소통 사각지대 해소
- 120다산콜의 ‘1만DB’ 서울시 상담과 다누리 ‘13개국어 24시간’ 다문화 종합상담 시너지

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(이이재 이사장)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전주원 이사장 직무대행)이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6월 29일(목)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·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- 서울시 출연기관 120다산콜재단이 운영하는 120다산콜센터(02-120)는 서울시 행정상담 및 민원 접수, 생활·관광 정보, 생활통역 등 외국인을 위한 전화 상담 서비스를 5개국어(영어·중국어·일본어·베트남어·몽골어)로 제공하고 있다. 운영시간은 월~금 9:00~18:00(공휴일 제외)이다.

- 120다산콜센터는 2007년 9월 12일 ‘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’는 취지로 창설된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 행정혁신 사례로, 외국어 상담은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. 2010년은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‘한국 방문의 해’로, 오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ی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.
-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는 13개 언어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 제공 및 위기상담·긴급 지원, 생활통역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지원하고 있다. (제공언어: 한국어·영어·중국어·베트남어·타갈로그어·캄보디아어·몽골어·러시아어·일본어·태국어·라오스어·우즈베크어·네팔어)
- 120다산콜센터와 다누리콜센터는 업무 연계를 통해 외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운영시간을 상호 보완하여 외국인의 정보소통 사각 지대를 크게 해소할 예정이다. 120다산콜센터는 외국어 상담 미제공 언어 및 미운영 시간의 외국인 상담을 다누리콜센터로 안내하고, 다누리콜센터는 외국인이 서울시 관련 문의를 할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안내한다. 1만 건의 서울시·25개구 업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120다산콜센터와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.
-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주원 이사장 직무대행은 “120다산콜재단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정보제공 강화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전했다.

-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은 “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하여 정보소통 약자인 외국인이 더 편리한 한국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며 “앞으로 더욱 다양한 약자동행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120다산콜재단-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업무협약식 사진



〈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- 전주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〉